

# 業界소식

## 화면 편집 워드 프로세서 개발

□ 廣林電子工業(株) □

廣林電子工業은 화면 편집방식의 워드 프로세서 「TOBIL」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워드 프로세서는 인쇄기능의 다양화로 확대 인쇄는 물론 고딕체와 명조체를 쓸 수 있으며 인자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문서의 편집이나 저장 및 검색 등의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하나의 시스템으로 한글처리와 영문이 가능하다.

특히 원하는 출력 양식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들 기능에는 페이지 길이를 설정하고 글자크기 및 종류 등의 조절도 가능하다.

## 디지털 制御機器 국산화 진전

□ 國際電子技術社 □

國際電子技術社は 최근 디지털 카운터인 1단 프리세트 카운터의 국산개발에 성공, 제16회 한국전자전에서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회장상을 수상하는 한편 연간 200万弗 상당의 수입대체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同社は 산업기계류 전자자동화설비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1단 프리세트 카운터를 개발한데 이어 토탈카운터, 2단 프리세트 카운터, 회전속도 측정 및 제어 타코미터 등을 개발, 디지털 제어기기류 국산화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 高麗 AT 200 개발

□ 高麗시스템産業(株) □

高麗시스템産業은 한글·한자·영문 워드 프로세

서인 名筆에 단말기를 16~48대까지 연결할 수 있고 16비트 IBM PC와 호환성이 있는 2種의 컴퓨터 시스템인 高麗 AT 200과 高麗 NET 300을 최근 개발했다.

주 기억 용량이 512KBit부터 1MBit 규모이며 入出力(IO)프로세싱이 128KBit인 高麗 AT 200 시스템은 名筆 워드 프로세서를 최대 16대의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어 일반 비즈니스 업무 처리용 패키지 개발에 용이하다.

또 高麗 NET 300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갖고 독립적인 시스템 기능을 가진 단말기를 기본 9대에서 최대 48대까지 연결, 고속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高麗 NET 300 시스템의 주 기억 용량은 128KBit로 단말기의 추가 부착으로 그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보조기억 용량으로 플로피 디스크는 360KBit, 하드 디스크는 최대 180MBit까지, 카트리지 테이프는 45MBit를 Back up할 수 있다.

## 표면 彈性波 素子 필터 개발

□ 金星計電(株) □

金星計電은 그 동안 국내생산이 되지 않아 전량을 수입해 온 컬러TV·VTR·무선기기·위성통신 등에 쓰이는 첨단기술의 새 소재인 표면 탄성과 소자 필터의 개발에 성공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할 淸州공장을 완공, 지난 10월 24일 준공식을 거졌다.

이들 제품의 국내 수요는 컬러TV용만 계산해도 600만대에 이르고 있어 수입대체 효과가 40~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VTR·무선기기·위성통신용 등의 내수와 수출 수요를 합치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첨단기술의 새 소재인 이 제품은 그 제조공법과

정밀도가 반도체 제조와 맞먹을 만큼 초정도의 淸淨度가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을 꺼려 왔고 물량 제한과 가격 조작 등을 일삼아 관련 수요업체가 이의 적기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同社は 지난 3년 동안의 연구와 5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로 이번에 이의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는데 앞으로 음성다중TV용 등의 필터도 개발할 계획이다.

### 無線리모콘 프론트 로딩 VTR 개발 (株) 金星社

金星社は 여러가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값이 싼 無線리모콘 방식의 프론트 로딩 VTR을 개발했다.

기존제품보다 10만원 정도가 싼 이 제품은 테이프 카운터, 동작상태 등 모든 기능을 하나의 표시판에 숫자와 문자로 나타내줌으로써 현재의 작동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시청도중 자리를 비울 때 최고 4시간까지 녹화되는 순간 예약 녹화기능, 원하는 화면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전자식 메모리 기능, 편집때 화면의 연결부분을 무리없이 이어주는 간이편집기능, 방송국 선택에 따른 번거로움을 개선한 채널 자동 선택 기능 등 13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

同社は 이 제품을 韓國型 VTR로 정하고 내수 판매에 힘을 계획인데 앞으로 이의 수출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 100 個所 同報機能 팩시밀리

金星電氣(株)

金星電氣는 최대 100個所의 順次 同報 및 조작 순서 지시 등 새로운 기능을 갖춘 팩시밀리 GOLD FAX27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감엽기록 방식으로 초고속 12초 전송이 가능하며 한번의 조작으로 모든 송신이 가능한 원터치 방식 프로그램 다이얼과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관리기능, 조작 절차를 나타내 주는 넓은 화면 등 다양한 OA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특히 시각 지정에 의한 예약 통보 기능으로 통화료가 적게드는 야간을 이용하면 통신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최대 A3판까지의 원고 송신이 가능하고 원하는 경우 이를 B4 혹은 A4 까지 자동으로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다.

### 레이저 發振器 국내 첫개발

金星電線(株)

金星電線은 지난 84년부터 工業用 레이저 개발작업을 벌여온 결과 고도의 정밀 설계와 구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레이저 발진기를 독자적인 설계로 제작,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同社가 1차적으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레이저 發振器는 1.2mm두께의 탄소강판의 절단과 의료·용접용 레이저를 발진해 낼 수 있는 120W짜리로 초기 국산화율이 70%를 넘고 있다.

이 장치는 탄산가스를 이용한 가스 레이저의 일종으로 발진기 내부의 전기장과 가스의 운동방향·발생 레이저의 광축이 동일축선상에 있는 저속 축류형 레이저 발진방식을 채택한 첨단기술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同社は 내년 하반기부터 이 발진기를 1차로 양산, 현재 수입가의 절반 가격수준(120W 수입가격 7,000만원)에 공급하고 단계적으로 500W·1KW 짜리도 생산할 계획이다.

그런데 세계 레이저 가공기 수요가 매년 30~40%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수출전망도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초정밀 PCB 量産

大德電子(株)

大德電子는 CAD/CAM 시스템 등 자동화 설비를 확보하고 첨단 PCB 제품인 다층인쇄회로기판을 비롯, 전자부품 자동삽입용 인쇄회로 기판을 量産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同社は 超精密·高信賴性 기판을 다량 생산해 국내외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같은 자동생산체제 확립과 함께 0.2mm의 高精度 配線을 요하는 VTR·컬러TV·컴퓨터용 파

인패턴 PCB와 카메라·램프·전탁 등에 사용되는 카본 콘택트 PCB도 개발, 量産에 들어갔다.

## 뱅킹터미널 사업 참여

□ 大宇通信(株) □

大宇通信은 11월 하순부터 日本에서 상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화콤9450 퍼스컴을 국내에서 量産 공급할 계획에 이어 뱅킹터미널 사업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同社는 日本의 富士通과 기술 제휴로 뱅킹터미널을 국산화, 국내 시장에 공급키로 하고 富士通과 기술 제휴를 추진중이다.

日本의 富士通은 그 동안 韓國후지쯔를 통해 국내 시장에 뱅킹터미널 완제품을 공급, 시장점유율 15%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大宇通信에 기술을 공여해 우리나라에서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同社가 富士通의 뱅킹터미널을 국산화할 경우 국내 뱅킹터미널 공급업체 중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IBM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산기종 공급업체가 되는 셈이다.

국내 뱅킹터미널 시장은 연간 2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 輸出用 퍼스컴 개발

□(株) 三寶컴퓨터 □

三寶컴퓨터는 현재까지 나와있는 퍼스컴 가운데 상위기종인 트라이젱 AT를 輸出用으로 개발했다.

이 16Bit 퍼스컴은 LAN구축, 터미널 내용, CAD/CAM 기능 등을 지니고 있다.

美國 인텔社에서 개발한 80286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채용한 이 트라이젱 AT는 처리속도가 빨라 엔지니어링용으로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 VTR 日本의 G마크 획득

□ 三星電子(株) □

三星電子는 日本 通産省과 산업디자인진흥회가 실시한 85년도 G마크 심사에 VTR을 출품, 이 마크를 따냈다.

日本의 G마크 제도는 通産省과 산업디자인진흥회가 상품의 디자인과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57년부터 매년 13개 부문에 걸쳐 실시해오고 있는데 작년부터 외국제품의 신청도 받아 심사하고 있다.

## 한글·漢·英 동시 편집 「으뜸글Ⅲ」 개발

□(株) 큐닉스 □

큐닉스는 한글·한자·영문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워드 프로세서 「으뜸글Ⅲ」을 개발했다.

「으뜸글Ⅲ」 워드 프로세서는 대화방식으로 한자 자동변환이 뛰어나고 처리가 가능한 한자는 1만 5,000단어, 3,100자이다.

다양한 편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어 삭제와 화면이동 및 블록이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특히 콤팩트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전자우편이 가능하고 하드 디스크를 내장, 대량기억장치로 다양한 서류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밖에 「으뜸글Ⅲ」은 공문서 작성, 전화번호부 검색, 발송부 작성 및 계산기능을 갖추고 있다.

## 音多專用 튜너 개발

□ 泰光産業(株) □

泰光産業은 기존 컬러TV로 음성다중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音多專用 튜너를 개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同社가 개발한 음성다중 튜너는 현재 각가정에서 갖고 있는 모든 오디오에다 튜너를 내장, 영상수신기와 함께 스테레오 및 音多방송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품이며 특히 튜너 설치가격이 8만5,000원선으로 저렴, 음성다중TV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특히 튜너의 특징은 음성만을 별도 수신하여 증폭하기 때문에 음성수신 대역을 보완, 청취가 가능하다.

## 電話無線裝置 개발

□ 韓進電子(株) □

韓進電子는 다중회선 분배 통신방식을 적용하는

가입전화무선장치 SR-2033을 개발했다.

이 장치는 케이블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서도 자유롭게 전화회선을 중계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SR-2033은 시스템당 송수신 한 쌍의 주파수를 사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과 배치계획이 용이한 점이 특징이다.

## 인공위성 TV시스템 핵심부품 첫 수출

□ 現代電子産業(株) □

現代電子産業은 최근 인공위성을 이용한 TV 방

송시스템 중 가장 핵심부분인 LNA(저잡음증폭기)와 TVRO를 독자적으로 개발, 국내에선 처음으로 美國과 캐나다지역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同社가 개발한 이 LNA는 12GHz의 약한 전파를 TV에 알맞게 증폭하고 중계과정에서 생기는 전파의 찌그러짐, 이상변조현상 조정, 선명한 TV화면과 맑은 음질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美國의 보만社에 1차로 2만5,000대분을 수출키로 계약, 지난 10월에 첫 선적했다.

또한 TVRO를 캐나다의 켄셋 커뮤니케이션社에 3만6,000대분을 수출키로 계약했다.

### <P. 71에서 계속>

#### 4. 우리課題와 方向

우리의 國民經濟는 그의 經濟主体들에게 적지 아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들 各 經濟主体들이 우선 제 몫을 다 해야 한다.

우선 承認者요, 調整者, 企業家 심판자의 역할을 하여야 할 政府가 과연 우리의 經濟計劃, 運用, 統制에 있어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70年代와 대비해 볼 때에 굉장히 뒤지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야 그 때와 對比해 볼 때에 國內外 與件이 다르고 經濟規模가 달라지기도 했지만 萬人이 그러한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經濟現實 認識을 신속히 파악 분석 미리 対応하는 자세가 아쉬운 것으로 생각한다. 이 즈음 우리 보다도 經濟가 몇段階가 썩 잘 되고 있는 自由中國에서는 금년에 들어 와서는 몇달 전에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빨리 対応策을 마련한 그들의 지혜를 좀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經濟解決士의 부재 혹은 經濟解決士 窓口の 부재란 世間的 評을 경청하면서 늘 固定된 똑같은 사람들만이 똑같은 場所에 모여서 똑같은 이

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結論을 얻는 愚를 과감히 버리고 좀 더 意見을 달리하는 사람들과의 과감한 접촉을 통해서 施策이 失機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産業社會에 있어서 經濟의 主体는 역시 企業이라 할진대 企業은 經濟難局 타개의 主役으로서 어떤 國內外 與件下에서도 충분히 企業經營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人類에 꼭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나홀로만이 生産하고, 그것도 값싸고 좋으면서 유리한 去來條件으로 제공할 수 있는 企業體質 強化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金融産業에 있어서도 사정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金融産業에 있어서 살고 있는 自由化바람 또 여러 金融機關 사이의 熾烈한 競爭은 時間이 흐름에 따라서 더 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政府가 構想하고 있는 金融制度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분명치 않기는 하지만 金融産業에 있어서의 銀行도 企業體質 強化에 따른 競爭力 強化만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여간 85年 下半期와 86年의 우리 經濟는 重大한 分岐點에 와있는 느낌이 없지 않으므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